



삼성증권 김태현 광주지점장의 이번 주 추천종목은 식품업체인 CJ와 전자재료 제조업체인 SSCP다. 김 지점장은 CJ를 추천한 이유에 대해 삼성생명 지분을 8% 보유하는 등 올해 우량 자산가치가 부각되고 견조한 실적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SCP는 특수코팅재료시장 확대와 신제품 판매 가격 상승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PDP용 전극소재를 독점 공급하면서 올해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브랜드 힘·시장 지배력 탁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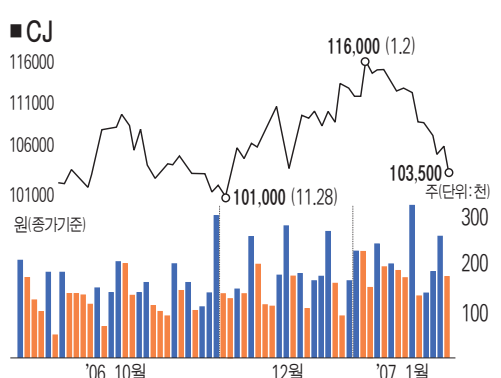
PDP용 소재 독점 '레벨업'

■ CJ

설탕과 햇반 등을 생산하는 국내 1위의 식품기업으로 제일제당의 새로운 이름이다. 매출구성엔 설탕과 밀가루가 37%, 햇반·두부 등 가공식품이 33%로 식품이 주력이지만 최근에는 한일약품공업을 흡수합병하면서 생병공학 제품 제조로도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에는 설탕·밀가루 등 소재식품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소비회복에 따른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가공식품 부문 증가가 매출액 성장을 견인했다. 증권가에서 지적하는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첫째, 국내 1위 식품업체라는 탁월한 브랜드력과 시장 지배력을 꼽을 수 있다.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쉽게 전가시키는 안정적인 영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실적안정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로 CJ는 최근 1개월 사이에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반영해 밀가루 가격은 올리고 설탕가격은 내렸다.

삼성증권 김태현지점장은 "CJ가 업계중 최초로 원자재 가격을 제품 판매가에 반영한 것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의 표현이다"고 말했다.



두번째 투자 포인트는 자산주라는 점이다. CJ는 CJ그룹의 지주회사나 다름없이 계열사 지분 가치만해도 1조원이 넘고 삼성생명·삼성물산·호텔신라 등 보유중인 투자 유가증권 가치도 1조 원이상을 평가받고 있다. 또 자회사를 통해 보유중인 미국 나스닥 상장업체인 드림웍스 에니메이션 지분매각과 시가 5천~6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영등포와 김포공장의 매각이 추진될 경우 지난해 인수·합병과정에서 늘어난 부채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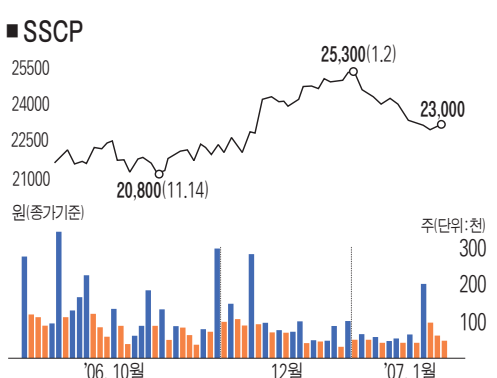
■ SSCP

1973년 설립된 삼성화학페인트가 전신으로 도료업체에서 고부가가치 코팅재료 업체로 변신했다. 가전제품의 코팅처리 재료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삼성SDI와 공동으로 PDP 전극재료를 개발하면서 전자재료 전문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은 코팅재료 부문이 전체의 80.6%, 전자재료 부문이 19.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광통신용 UV 코팅재 양산에 들어갔고 올해부터 독점 공급하는 PDP 전극재료가 본격적인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전자재료 부문 매출 점유율이 커질 전망이다.

이 회사의 최대 강점은 코팅소재 부문에서 자동차, 휴대폰, 노트북,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코팅부문에 IT소재에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여기에 젊은 CEO의 능력도 향후 성장 가능성



을 밝게 하고 있다. 창업주 2세로 미국 코넬대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한 오정현대표는 취임후 회사를 도료업체에서 코팅재료 기능성소재 생산업체로 변신을 주도해 능력을 검증받았다는 평가다.

그러나 대형업체들과의 경쟁압박은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추후 개발예정인 필름소재 등 전자재료 제품이 듀폰·3M·노리다케 등 세계 유수업체 제품과 비교할때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느냐가 관건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기아차도 성과금 50% 격려금 형식 지급키로

현대차에 이어 기아자동차도 지난해 말 경영난으로 지급하지 않았던 성과금 50%를 격려금 형식으로 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기아차는 지난해 1천억원 가량의 영업손실이 예상돼 성과금 150% 중 50%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며, 노조도 회사측 제안에 동의할 바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차는 지난해 환율하락과 국내외 판매부진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노조에 주지 않았던 성과금 50%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사측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금 형식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차의 이번 결정은 현대차 노사의 성과급 추가지급 합의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작년 12월 성형수술비·보약값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 듯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공포돼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쓴 성형수술비와 보약값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과 모든 약품 구입비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를 작년 12월 지출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의료비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 했고 다음달 6일까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2월8일), 국무회의(2월13일)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에 공포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을 모든 의료비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정부는 또 모든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로 의료기관의 소득이 일시에 노출돼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의료기관의 전년대비 세금 증가분이 일정수준 이상이 될 경우 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빈곤층 박탈감 키우는 최저생계비

근로자 평균소득의 30% 불과... 유명무실

1인가구 43만5,921원, 4인인 120만 5천원

최저생계비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의 평균 소득·지출증가율도 따라잡지 못하는 등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데 미흡하기 때문이다. 실제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전체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3분의 1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친다. 이는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최근 내놓은 '최저생계비 계속 대안 모색연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최저생계비는 올해 기준으로 1인가구가 43만5천921원, 4인 가구가 120만5천535원으로, 151만3천여명이 지급 대상이다.

4인 가구 평균소득 대비 최저생계비의 비중이 해마다 축소되는 추이가 뚜렷하다. 공식적으로 최저생계비가 발표된 1999년에만 해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38.2%였던 것이 2000년에는 35.4%, 2001년 33.8%, 2002년 33.4%, 2003년 32.1%, 2004년 30.5%로 매년 감소했다. 이에 따라 평균 가계지출 대비 최저생계비도 이 기간 48.7%에서 39.5%로 9.2% 포인트나 줄어들었고 평균 소비지출 대비 최저생계비도 56.4%에서 45.7%로 급감했다. 평균 소비지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최저생계비를 받고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 대비 최저생계비 비중도 떨어졌다. 1인 가구 기준으로 1999년에만 해도 최저임금 대비 최저생계비가 91.3%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06년 59.7%로 31.6% 포인트나 줄어들었다. 우리의 최저생계비 수준은 외국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에 따르면 생산직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소득보장 수준이 우리나라는 36%로 OECD에서 미국(16%), 스페인(35%), 캐나다(36%)와 함께 최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1만원권·1천원권 받으려고... 새 1만원권과 1천원권 발행을 하루 앞둔 21일 화폐교환 창구가 있는 한국은행 별관 앞이 회귀 일련번호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종이상자와 텐트로 잠자리를 만들어 밤샘 대가를 했다. /연합뉴스

경기둔화·환율하락에 이자부담 가중

"부동산 잡다 中 小 企 잡는다" 우려

일부 중소기업들이 경기둔화와 환율하락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이자부담까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거시경제에 압축부상하고 있다. 과잉유동성과 자산시장의 거품을 잡으려고 구사한 통화당국의 긴축정책이 중소기업에겐 독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이후 석달여 동안 국민·우리·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금리는 0.37~0.40%포인트 급등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11월 대출금리 상승폭이 0.10%포인트, 12월이 0.15%포인트, 1월이 0.15%포인트로 상승곡선이 점차 가팔라지는 분위기다. 이로써 10억원의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금리인상으로 석달여만에 연 이자부담이 400만원 늘어나게 됐다.

중기대출금리가 짧은 기간에 이처럼 급등한 것은 기준금리인 양도성에금증서(CD) 및 금융채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CD금리는 연 4.57%에서 4.94%로 0.37%포인트 올랐다. 문제는 외환시장 불안 및 경기 하강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비량 깔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이자부담이라는 또 다른 악재를 만나게 됐다는 점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정우 수석연구원은 "자금준비를 인상 등 긴축정책의 효과가 예상보다 커 서민과 함께 중소기업들이 위기로 빠져들고 경기도 전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유로넷	[주5일/정규]SK텔레콤 CRM상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1/23	02-780-9595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2007년 대학원졸 신입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4	02-460-5833
㈜해주축산업	2007년 리더스 하이 경력사원 채용안내	회사내규	01/26	062-675-4900	
㈜진합광주공정	생산직 일처리 사원모집	고졸/경력1년	1000~1200	01/27	062-951-3901
동양생명	[TM1]웨브서비스센터 상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30	02-518-2769
㈜나영인태내셔널	무등파크호텔 경리담당(신입/경력)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30	062-226-0011
㈜엘이즈	비보시랑-물류센터 관리자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1/31	1544-8885
한국게임사관학교	제2기 게임서비스 운영과정 교육생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31	062-350-2446
삼일테크	네트워크 구축 및 장비 유지보수 사원모집	초대졸/경력2년	1800~2000	01/31	017-606-0600
문신내건축(주)	실내건축 산업기사 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1/31	062-682-0419
㈜인터데브	닷컴 및 학사행정 사원모집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1/31	02-859-0070
두립개발(주)	영화편 서비스 관리직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31	062-251-1388
㈜광주통신공사	SK텔레콤 중계기 시설 현장사무실 CAD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1/31	062-372-3600
정원교육문화(주)	[정원교육문화]친절한 정원 선생님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1/31	062-514-790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금강제화 "편안하고 여성스럽게"



금강제화는 올 봄 패션 키워드를 '로맨틱 미니멀리즘'으로 잡고, 심플한 실루엣에 볼륨감을 강조해 편안하고 여성

스러운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색상은 블랙 & 화이트를 기본으로 레드와 골드 컬러를 가미하며, 소재 또한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강제화 강주원 디자인실장은 "스타일에 있어서 2cm 미만의 굽 낮은 플랫폼의 경우 로맨틱 무드와 깔끔한 라인으로 처리하는 제품이 이번 시즌의 포인트"라면서 "특히 복고풍의 영향으로 두툼한 두께의 볼륨함을 비롯해 웨딩 등 다양한 힐들이 선보이면서 10~15cm 높이의 하이힐까지 완성도있게 연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02)530-7015.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로도복권 (제216회)		팝콘복권 (제39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등위	당첨금(원)
071617333640	01	1	10억
		2	5억
		3	1천만
		4	1백만
		5	1만
		6	2천
		7	1천

당첨번호	당첨금(원)	당첨자 수
1	848,506,108	13
2	29,181,427	63
3	703,840	2,612
4	46,441	79,174
5	5,000	1,157,342